

## 중년기여성의 부부 갈등해결전략과 가족구조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

유 경 란<sup>†</sup>

도호쿠대학대학원 교육학연구과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중년기여성을 대상으로 아내가 인지하는 가족구조와 부부 갈등해결전략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그 차이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고교생 자녀를 둔 한국과 일본의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부-모-자 3자간의 친밀감 및 세력과 부부 갈등해결전략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구조의 친밀감과 세력 특점에 대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한국은 유교적 가족관에 근거한 부권존중의식의 잔존으로 인해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친밀감이 높은 가족 구조를 이루고 있고, 일본은 가족 개인화 경향 및 가족 내 아내의 경제적 위치의 상승으로 인해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지배력이 강한 가족구조를 이루고 있어, 가족구조에는 한일 차가 있었다. 둘째, 5개 갈등해결전략 특점을 비교한 결과, 갈등해결전략의 선택에는 한일 간의 차이가 있으며 그 배경에는 문화적 자기관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주체성 자기가 발달된 한국인은 자기 현시성에 근거하여 주장과 양보를, 대상적 자기가 발달된 일본인은 자기 억제성에 기인하는 회피와 타협을 선호하였다. 또한 갈등해결전략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를 비교한 결과, 회피 전략은 한국과 일본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갈등해결전략의 연구에 있어서 개인주의-집단주의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각 국가의 개별성에 주목할 필요성이 시사되었다. 셋째, 국가와 가족구조에 따라 갈등해결전략의 사용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족구조를 4군집으로 나누어, 국가와 가족구조 군집을 독립변수로 하는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양국에 있어서 가족의 높은 친밀감과 아버지의 낮은 세력은 타협과 협조 전략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양국의 사회문화적 배경 및 가족구조는 부부의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부부의 친밀하고 평등주의적 관계는 건설적인 갈등해결전략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중년기여성, 부부갈등, 갈등해결전략, 가족구조, 한일 비교

<sup>†</sup> 교신저자 : 유경란, 도호쿠대학 교육학연구과

E-mail : ykyungran@gmail.com

1980년대 이후 동아시아는 급속한 경제 발전의 영향으로 사회변화가 가속화되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저출산과 고령화, 만혼화, 이혼율 증가 등 급격한 가족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가족관계가 변화하는 가운데 부부갈등을 유발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통계청, 2015; Cabinet Office, 2015; Soma, 2012).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족 문제 중에서, 부부의 갈등과 해결에 주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부부는 가족 발달의 전 과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Nakahori, 1992). 또한 부부관계가 양호한지의 여부는 부부 각자의 심리 건강과 가족 전체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특히 여성에게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Ito, Shimonaka, & Sagara, 2009).

본 연구는 한일 양 사회에서 가족의 변화 방향과 부부의 갈등해결에 주목하여 양국을 비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족구조와 부부의 갈등해결에 주목하여 양국을 비교하고 이 둘의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유교적 가치관이 근본 바탕이 되어 온 양 사회가 어떠한 가족구조를 형성하고 또한, 어떠한 부부 갈등해결전략을 구사하고 있는가를 규명함으로써 건전한 가족 유지와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 중년기 여성의 부부 갈등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 따르면, 생식 능력이 감소되는 중년기는 다음 세대의 성장에 기여할 것인가(생상선, generativity), 사라져 가는 자신의 삶에 집중할 것인가(침체, stagnation)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인생의 전환점에 해당하는 시기이다(Slater, 2003). 뿐만 아니

라 중년기는 가정적인 면에서도 직업적인 면에서도 다양한 변화를 경험한다. 가정에서는 자녀의 교육 문제나 자립의 문제, 부모의 간병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직장에서는 관리직으로의 승격 등으로 직업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개인적으로도 가족 전체적으로도 위기적 상황이 발생하기 쉽다(Kitamura, 1985). 또한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자녀가 독립한 이후 부부단들의 생활이 길어져 배우자에게 정서적 관계를 기대하는 경향이 커졌으나, 그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불만이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Kambara, 1992). 실제로, 부부관계 만족도 및 행복도 등, 부부 관계의 질적 측면에 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내의 평가가 남편보다 낮으며, 특히 중년기 이후의 부부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져 황혼기 아내의 부부관계만족도는 남편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Kashiwagi, Kazui, & Ohno, 1996). 또 결혼기간이 15년 이상인 부부의 경우, 아내의 남편에 대한 애정 특점이 남편의 아내에 대한 애정 특점보다 현저히 낮았다(Sugahara & Takuma, 1997). 한국에서도 거의 일치하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데, 남편의 결혼 만족도가 아내보다 높고(김대영, 2007),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은 결과가 보고되었다(신숙재, 1997; 이강호, 2006). 이러한 상황에 놓인 중년기 여성은 임상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중년기 여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부부갈등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무슨 노력이 필요한가? Buehlman, Gottman과 Katz(1992)에 따르면, 결혼 생활의 갈등은 갈등 그 자체보다 그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조

정하는가에 크게 좌우된다. 또한 갈등을 통하여 당사자는 자신과 상대방과의 관계와 자신이 소속된 집단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등 (Deutsch, 1973; Shantz & Hobart, 1989; Vuchinich, 1990) 갈등의 긍정적인 기능을 고려하면, 갈등 그 자체가 반드시 부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부갈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갈등 그 자체만이 아니라 해결을 위한 행동에도 주목하는 것이며, 둘째는 부부를 포함한 가족 시스템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하여 자세히 논한다.

갈등해결전략과 문화적 요인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행동 즉, 갈등해결 전략을 들 수 있다. 갈등해결전략의 분류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 그림 1에 제시된 “이중 관심 모델”이다(Blake & Mouton, 1964; Pruitt & Rubin, 1986; Thomas, 1976). 특히 Blake와 Mouton(1964)은 문제 해결의 목표를 타인에게 맞추는가 자기에 맞추는가 여부에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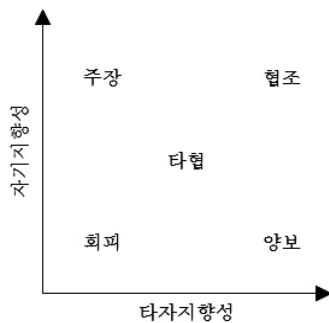


그림 1. 이중 관심 모델(Pruitt & Rubin, 1986)

라, 타자기향성과 자기지향성의 2차원 평면 내에서 갈등해결전략을 “주장”(assertion), “협조”(cooperation), “타협”(compromising), “회피”(avoiding), “양보”(yielding)의 5유형으로 나누었다.

여기서 “주장”이란 상대의 이해득실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해득실을 중심으로 해결하려는 전략이다. “협조”란 자타 양측의 입장을 존중하고, 서로의 이익을 최대화 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다. “타협”은, “주장”과 “협조” 중간에 위치한 전략으로, 요구 수준을 낮춰서 부분적인 실현을 도모하는 전략이다. “회피”는 갈등 사태로부터 철수하는 전략이다. “양보”는 자신의 요구를 억누르고 상대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다.

갈등해결전략의 선행연구에서는 갈등해결전략이 문화에 크게 좌우됨을 지적하고 하고 있으며(Ohbuchi, Fukushima, & Tedeschi, 1999), 특히 국가나 지역의 비교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갈등해결전략의 문화 비교연구 중 가장 널리 사용된 문화 구분 기준은 서양의 개인주의와 동양의 집단주의이다. 예를 들어 Chua와 Gudykunst(1987)는 미국에 거주하는 37개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하여 집단주의 문화의 사람은 개인주의 문화의 사람보다 갈등을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보고하였다. Triandis, Bontempo, Villareal, Asai와 Lucca(1988)는 친구 관계에서 일본인은 미국인보다 갈등을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보고하였다. 부부갈등 관련 연구에서도, 집단주의의 일본인 아내는 개인주의의 스웨덴 아내와 비교하여 원만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립을 회피한다 (Yoshizumi, 2004). 이상의 결과로부터,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자기지향성이 강한 갈등해결전략을,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타자기향성이 강한 갈등해결전략을 주로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논함에 있어서, 서양은 개인주의이고 동양은 집단주의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대한 의문도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Takano와 Osaka(1999)는 일본과 미국의 개인주의-집단주의를 비교한 15개의 실증 연구를 분석하여, 기존의 개인주의-집단주의 가치관의 이분법적 구분을 지지하는 선행 연구는 Hofstede(1980)에 그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개인주의-집단주의의 이분법적 비교 자체가 너무나 단순화된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이로서는 문화의 다양성 및 문화 간 차이를 포괄하기 힘들다는 점도 지적되었다(이누미야요시유키, 2003; Brewer & Chen, 2007, Kim, 1995).

이상으로 문화적 요인에 주목하여 갈등해결 전략의 연구 동향을 검토하였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로 대별되는 문화는 갈등해결전략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개인주의-집단주의라는 단순화된 이분법적 관점에 기초한 갈등해결전략 연구가 문화적 요인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할 수 없다. 지금까지 갈등연구는 주로 유럽과 미국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왔으나(Triandis, 1989), 전 세계인구의 70%가 집단주의 문화권에 거주하고 있음을 고려하면(Bell, 1987), 동일한 집단주의 국가로 간주되는 한국과 일본으로 세분화하여 갈등해결전략을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가족구조

갈등이 자기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리고 당사자가 소속된 집단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지적되었다(Deutsch, 1973; Shantz & Hobart, 1989; Vuchinich, 1990). 부부갈등에 있어서도 이러한 관계성 혹은 집단에 대한 이해가 갈등 해결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리

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Kurdek(1994)은 동성애 커플 126쌍과 이성애 부부 108쌍을 대상으로 갈등 장면을 조사하고 갈등 장면을 분석한 결과, 관계성에 관련된 두 가지가 갈등의 요인으로 부상되었다. 첫째는, 경제적 문제, 불평등한 관계, 극단적인 요구, 지배, 가사 분담 등의 “세력”(Power)이며, 두 번째는, 애정 부족, 성관계 문제 등의 “친밀성”(Intimacy)이었다. 이렇듯 세력과 친밀성으로 대표되는 가족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므로 갈등 해결의 특징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하는 가족 시스템이론에서는, 가족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하는 수많은 이론이 존재한다. Wakashima (2010)에 따르면, 가족 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가족을 “구조”와 “기능”으로 이해하는 것이 임상적으로도 유효하다. “구조”란 구성원이 가족 관계를 어떻게 인지하는가와 같이 정적인 측면을 뜻하며, “기능”이란 가족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동적인 측면을 뜻한다. Kozuka, Noguchi, Uruma, Ishihashi와 Wakashima (2008)는 선행 연구의 가족구조 척도들을 망라하여 총 246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작성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친밀함, 이해적 관계, 세력, 개방성의 4요인을 추출하였다. 가족구조를 효율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이 가족구조측정척도(Noguchi, Kozuka, Usami, & Wakashima, 2009)는, 그 중에서도 친밀감과 세력 2요인이 가족구조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주축이다(Kozuka, 2014).

근대화에 의한 급속한 사회 변화는 가부장적 가치관에 의해 규정되어 온 한국과 일본의 가족에도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 하에서 한국과 일본은 서로

다른 가족구조를 형성해 왔다. 실제로 Kudou(1991)는 가족을 결속시키는 요인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에서는 “가족은 혈연에 의해서 결속되어 있다”라는 답이 가장 많았으며(48.4%), 일본에서는 “가족은 애정에 의해서 결속되어 있다”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43.5%). 또한, Mikane, Kirino, Futoyu와 Nakajima(2011)도 Olson, Portner와 Lavee(1985)의 가족기능측정척도(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Scale III, FACES III)를 이용한 한일 비교 연구를 통하여 한국인의 대학생과 그들 부모가 일본인보다 가족 응집성 특징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으로, 한일의 가족 구조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 차이가 부부의 관계성을 규정하여, 갈등 상황에서 서로 다른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중년기여성이 인지하는 가족구조와 부부 갈등해결전략과의 관련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중년기 여성의 관점에서 부모 간, 부자 간, 모자 간의 3자 간 가족구조를 유형화하여 부부의 갈등해결전략과의 관련에 대해서 한일 간의 차이에 의거하여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방 법

### 연구대상

2014년 9월부터 2015년 4월에 걸쳐, 한국인(263명)과 일본인(136명)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녀가 독립하여 육아로서의 가족 기능이 약화되기 시작하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 자녀의 학교를 통

해 의뢰하였다. 고등학생을 통해 설문지를 배부 및 회수하였다. 한국인의 경우, D시에 거주하는 기혼 여성 800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283명에게서 회수하였다(회수율 35.3%). 응답에 결혼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263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일본인의 경우, S시에 거주하는 기혼 여성 800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152명에게서 회수하였다 (회수율 19.0%). 응답에 결혼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136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두 도시는 각국의 지방거점도시이면서, 인구가 100~200만 명 사이로 비슷한 규모를 보여, 설문 비교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1에 조사 대상자의 기본 사항을 제시하였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한국인 45.3세( $SD=3.69$ ), 일본인 46.3세( $SD=4.13$ )이며, 대상자의 남편 평균 연령은, 한국인 48.2세( $SD=3.79$ ), 일본인 48.1세( $SD=5.43$ )였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 실시 전 도호쿠대학대학원 교육학연구과 내의 윤리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쳤다(ID: 14-1-010).

### 측정도구

조사지는 ① 페이스 시트, ② 가족구조측정척도, ③ 부부 갈등해결전략 척도로 구성되었다.

#### ① 페이스 시트

조사 대상자의 기본 속성(연령, 학력, 직업) 및 가족구성원에 대해서 묻는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 ② 가족구조 측정 척도

가족구조를 측정하기 위하여, 앞서 언급한 가족구조측정척도, Inventory for Character of Intra-inter Generation in Kinship(ICHIGEKI 척도;

표 1. 조사대상자 기본 사항

	한국( <i>n</i> =263)		일본( <i>n</i> =136)		
	남편	아내	남편	아내	
평균 연령	48.2세 ( <i>SD</i> =3.79)	45.3세 ( <i>SD</i> =3.69)	48.1세 ( <i>SD</i> =5.43)	46.3세 ( <i>SD</i> =4.13)	
학력	중졸	.4%	2.2%	.0%	
	고졸	17.5%	35.3%	32.4%	
	단기대학/전문대졸	9.1%	15.6%	19.9%	51.5%
	대학졸	46.4%	43.7%	37.5%	14.0%
	대학원졸	26.6%	10.3%	5.1%	2.2%
직업	무직	2.3%	.0%	28.7%	
	관리직	37.3%	6.5%	33.1%	2.9%
	전문직	21.3%	19.4%	27.2%	16.9%
	사무직	30.0%	17.5%	13.2%	14.7%
	서비스, 판매업 종사	4.6%	3.8%	12.5%	20.6%
	기타	4.5%	2.2%	14.0%	16.2%
	결혼년수	19.8년 ( <i>SD</i> =3.19)		19.7년 ( <i>SD</i> =3.47)	
자녀의 수	2.0명 ( <i>SD</i> = .53)		2.2명 ( <i>SD</i> = .75)		
첫 자녀의 나이	18.1세 ( <i>SD</i> =2.85)		17.8세 ( <i>SD</i> =3.03)		

Noguchi, Kozuka, Usami, & Wakashima, 2009)을 사용하여, “친밀감”과 “세력” 2요인에 관하여 측정하였다. 양자 간(부-모, 부-자, 모-자)의 “친밀감”(서로의 관계가 좋음, 친밀함, 연대감)과 “세력”(결정력, 영향력, 발언권)을 1에서 10점 만점으로 측정하였다. 예를 들면, “서로의 친밀감이 매우 약하다”를 1, “서로의 친밀감이 매우 강하다”를 10이라고 할 때 1-10 어디에 해당하는지 괄호 안에 숫자를 기입하게 하였다. “세력”에 대해서는 양방향의 세력 득점 차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③ 갈등해결전략 척도

부부의 갈등해결전략을 측정하기 위하여, Thomas-Kilmann Conflict Mode Instrument(TKI척도; Thomas & Killman, 1974)를 사용하였다. TKI척도는 2문장의 페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강제선택법(ipsative)을 채용한다. 예를 들면, “① 나는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와 “② 나는 서로의 타협점을 찾는다” 중에서 자신에게 좀 더 가까운 쪽을 선택한다. 여기서 ①은 주장, ②는 타협으로 분류된다. 본 척도는 2문장이 하나의 페어를 이루는 15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전략의 총 득점이 일정하다. 따라서 전략 간의 득점 사이에 부적 관련성과 부적 공분산성이 성립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내적 비

교의 특성이 보증된다(Thomas, Thomas, & Schaubhut, 2008). 이런 내적 비교 척도의 경우, 요인 간 공분산이 부의 값을 갖기 때문에 신뢰성 계수와 요인분석 등의 통계적 처리가 어렵다(Hicks, 1970; Thomas, Thomas, & Schaubhut, 2008).

그러나 본 척도는 검사-재검사법에 의한 신뢰성(Kilmann & Thomas, 1977), 전략 간 상관관계에 의한 타당성(Van de Vliert & Kabanoff, 1990), 또한 Myers-Briggs Type Indicator(MBTI) 척도와 의 상관관계(Johnson, 1997)가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갈등 연구에서 갈등 해결전략 척도로 활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경영자의 사내 갈등 관리(김범성, 2007), 갈등 해결전략의 성별 차이(Brahnam, Margavio, Hignite, Barrier, & Chin, 2005), 조직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과 전략의 관계(Morley & Shockley-Zalabak, 1986) 등의 연구에 사용되어 왔다.

분석방법

조사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족구조와 갈등 해결전략의 관련에 대하여 한일 비교를 실시하

였다. 통계적 분석에는 SPSS ver.22가 사용되었다.

결 과

가족구조의 한일 비교

친밀감과 세력을 주축으로 하는 가족구조의 특점이 한국과 일본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ICHIGEKI 특점에 대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친밀감 특점의 경우, 한국은 일본에 비하여, 부-모 친밀감 특점( $t(397)=4.856, p<.001$ )과 부-자 친밀감 특점( $t(397)=3.405, p<.001$ )이 유의하게 높았다. 모-자 친밀감 특점의 경우 양국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세력 특점의 경우, 일본은 한국보다 모의 자에 대한 세력 특점이 유의하게 높았다( $t(397)=2.861, p<.01$ ).

이상의 결과로부터, 아내가 인지하고 있는 가족구조에는 한일 차이가 있으며, 한국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친밀감이 강하고, 일본은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세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 ICHIGEKI 특점의 한일 비교

국가	한국( $n=263$ )	일본( $n=136$ )	$t$ 값
하위 척도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부-모 친밀감	7.905(1.995)	6.757(2.646)	4.856 ***
부-자 친밀감	7.156(2.150)	6.382(2.154)	3.405 ***
모-자 친밀감	8.198(1.637)	7.963(1.503)	1.394
부의 모에 대한 세력	.354(2.044)	.610(2.580)	-1.085
부의 자에 대한 세력	1.403(2.326)	1.610(2.533)	-.818
모의 자에 대한 세력	.711(1.910)	1.257(1.592)	-2.861 **

\*\*\*  $p<.001$ , \*\*  $p<.01$

표 4. TKI특점의 한일 비교

국가	한국(n=263)	일본(n=136)	t값
하위척도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회피	3.091(1.319)	3.816(1.278)	-5.259 ***
주장	2.202(1.531)	1.493(1.398)	4.512 ***
양보	4.152(1.451)	3.596(1.635)	3.475 ***
타협	2.738(1.107)	3.206( .887)	-4.274 ***
협조	2.817(1.321)	2.890(1.484)	- .496

\*\*\* $p < .001$

갈등해결전략의 한일 비교

다음으로,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국가별 갈등해결전략의 개념적 특징을 유추하기 위해서 5개 갈등해결전략 특점 간의 상관관계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수치는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이다.

그 결과, 양국에서 회피는 타협, 협조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순서대로, 한국  $r = -.459$ ,  $p < .001$ ; 일본  $r = -.378$ ,  $p < .001$ ; 한국  $r = -.185$ ,  $p < .01$ , 일본  $r = -.343$ ,  $p < .001$ ). 국가별로 보면, 일본의 경우, 회피는 주장과 부적 상관관계( $r = -.218$ ,  $p < .05$ ), 한국의 경우 회피는 양보와

부적 상관관계( $r = -.390$ ,  $p < .001$ )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에서 회피는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있지만 침묵을 통해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는 의미가 크고, 한국에서 회피는 의견 대립 시 상대방의 의견을 납득하고 받아들이는 양보와 달리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이 한국보다 회피와 양보를 가까운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장수지, 2010)

주장의 경우, 양국에서 양보, 타협과 부적 상관관계(순서대로, 한국  $r = -.325$ ,  $p < .001$ , 일본  $r = -.418$ ,  $p < .001$ ; 한국  $r = -.493$ ,  $p < .001$ , 일본  $r = -.250$ ,  $p < .01$ )로 나타났으며, 한국에서 협조와

표 3. TKI특점 기술 통계 및 상관관계

하위척도	회피		주장		양보		타협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주장	.000	-.218 *						
양보	-.390 ***	-.078	-.325 ***	-.418 ***				
타협	-.459 ***	-.378 ***	-.493 ***	-.250 **	.087	-.121		
협조	-.185 **	-.343 ***	-.389 ***	-.145	-.405 ***	-.568 ***	.098	.096

\*\*\* $p < .001$ , \*\* $p < .01$ , \* $p < .05$



부적 상관관계( $r=-.389, p<.001$ )로 나타났다. 양보의 경우, 양국에서 협조와 부적 상관관계 (한국  $r=-.405, p<.001$ , 일본  $r=-.568, p<.001$ )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국가에 따라 갈등해결전략 사용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TKI 특점에 대해서 t검정을 실시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회피 전략의 경우 일본이 한국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t(397)=5.259, p<.001$ ), 주장과 양보 전략의 경우 한국이 일본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순서대로, 주장  $t(397)=4.512, p<.001$ , 양보  $t(397)=3.475, p<.001$ ), 타협의 경우 일본이 한국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t(397)=4.274, p<.001$ ).

일본인이 갈등상황에서 자신과 상대방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쌍방에 대한 관심이 동시에 낮은 타협 혹은 회피 전략을 선호한다면 한국인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거나 상대방에게 굴복하는 주장 혹은 양보와 같이 편중된 해결전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조의 유형화

국가와 가족구조에 따라 5개 차원의 갈등해결전략 사용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가족구조 하위요인 즉, 부모 친밀감 득점, 부-자 친밀감 득점, 모-자 친밀감 득점, 부의 모에 대한 세력 득점, 부의 자에 대한 세력 득점, 모의 자에 대한 세력 득점을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족구조 하위요인 6변수에 대하여 Ward법을 사용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 수를 2에서 5까지 변화시키고, 각 군집에 포함되는 조사 대상자 수와 각 군집의 해석 가능성을 검토하여 해석 가능한 4군집을 채용하였다. 그리고 각 군집의 가족구조 하위척도 득점의 표준화된 평균치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군집 1은, 조사대상자의 29.8%가 분포되어 있다. 부모-자 3자 간의 친밀감 득점, 부의 모에 대한 세력 득점, 부의 자에 대한 세력 득점이 높았다. 따라서 군집 1을 “고친밀감·고부세력군”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조사대상자의 30.8%가 분포되어 있고, 3자 간의 친밀감 득점이 높고, 부의 모에 대한 세력과 부의 자에 대한 세력 득점이 낮았다. 따라서 “고친밀감·저부세력군”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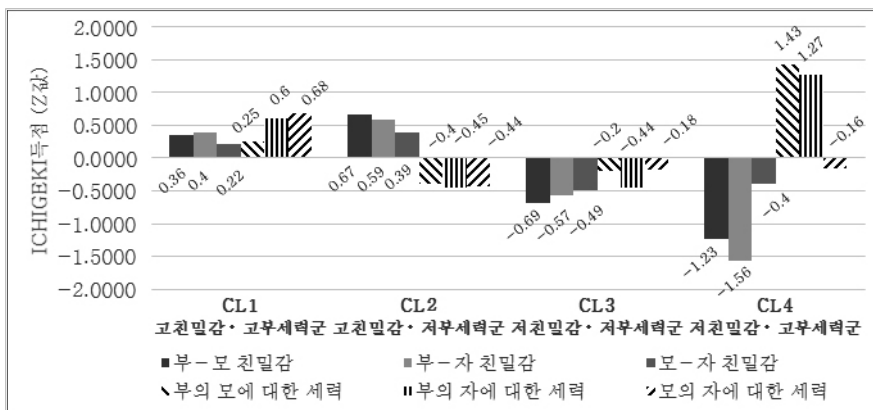


그림 2. 가족구조의 하위척도 득점의 표준화 값 (Z값)

3은, 조사대상자의 31.6%가 분포되어 있고, 3자 간의 친밀감 득점과 부의 모에 대한 세력, 부의 자에 대한 세력의 득점이 낮았다. 따라서 군집 3을 “저친밀감·저부세력군”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4는, 조사대상자의 7.8%가 분포되어 있다. 3자 간의 친밀감 득점이 낮고 부의 모에 대한 세력과 부의 자에 대한 세력 득점이 높았다. 따라서 군집 4를 “저친밀감·고부세력군”으로 명명하였다. 각 군집의 가족구조 하위 득점의 평균치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또한 4개의 군집에 따라 한국과 일본 여성들이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분포도의 한일 차는 유의미하였으며( $\chi^2(3)=12.741, p<.01$ ), 군집 2(고친밀감·저부세력군)에는 한국이 일본에 비

해 높은 비율로 분포되어 있고, 군집 3(저친밀감·저부세력군)에는 일본이 한국에 비해 높은 비율로 분포되어 있었다.

가족구조 하위득점을 비교한 표 2에서도 한국의 친밀감 득점이 일본보다 높았으며, 군집결과에서도 한국의 여성의 일본의 여성보다 가족의 친밀감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이 나타났다.

가족구조와 갈등해결전략과의 관련

이어, 국가 및 가족구조에 따른 갈등해결전략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국가와 가족구조 4군집을 독립변수, TKI득점을 종속변수로 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에서

표 5. 각 군집의 가족구조 하위척도 득점의 평균과 표준편차

군집 \ 척도	CL1	CL2	CL3	CL4	군간 변량분석 ( $df=3$ ; 집단내 오차 $df=395$ )			
	고친밀감· 고부세력군	고친밀감· 저부세력군	저친밀감· 저부세력군	저친밀감· 고부세력군	F	$\eta^2$	p	MSE
부-모 친밀감	8.336 (1.509)	9.065 (.894)	5.921 (2.240)	4.677 (2.358)	107.34***	0.815	.000	2.937
부-자 친밀감	7.756 (1.467)	8.187 (1.387)	5.651 (1.957)	3.484 (1.568)	107.43***	0.816	.000	2.635
모-자 친밀감	8.471 (1.119)	8.740 (1.151)	7.333 (2.028)	7.484 (1.092)	23.36***	0.177	.000	2.175
부-모에 대한 세력	1.008 (2.416)	-.447 (1.521)	-.016 (1.711)	3.645 (2.457)	41.61***	0.316	.000	3.844
부-자에 대한 세력	2.916 (2.007)	.398 (1.712)	.413 (1.877)	4.516 (2.554)	73.37***	0.557	.000	3.719
모-자에 대한 세력	2.143 (2.108)	.098 (1.468)	.571 (1.286)	.613 (1.308)	35.15***	0.267	.000	2.647

\*\*\*  $p<.001$

표 6. 각 군집의 분포도와 조정된 잔차

군집 \ 척도	CL1 고친밀감· 고부세력군	CL2 고친밀감· 저부세력군	CL3 저친밀감· 저부세력군	CL4 저친밀감· 고부세력군	$\chi^2$
한국인 수 (분포도)	78 (29.7%)	95 (36.1%)	74 (28.1%)	16 ( 6.1%)	
조정된 잔차	-1	3.2**	-2.1*	1.7†	
일본인 수 (분포도)	41 (30.1%)	28 (20.6%)	52 (38.2%)	15 (11.0%)	12.741***
조정된 잔차	.1	-3.2**	2.1*	-1.7†	
전체 수 (분포도)	119 (29.8%)	123 (30.8%)	126 (31.6%)	31 ( 7.8%)	

\*\*\*  $p < .001$ , \*\*  $p < .01$ , \*  $p < .05$ , †  $p < .1$

는 국가와 가족구조의 주효과, 국가×가족구조의 상호작용효과 및 Sidak의 사후검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회피의 경우, 국가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는데, 일본이 한국에 비해 회피 특점이 높았다 ( $F(1,391)=21.570, p < .001$ ). 주장에 있어서도, 국가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여, 한국이 일본에 비해 주장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F(1,391)=10.038, p < .01$ ). 양보 전략의 경우, 국가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여, 한국은 일본보다 의견불일치 상황에서 양보 전략을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F(1,391)=7.075, p < .01$ ). 타협의 경우, 우선 국가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으며, 일본은 한국보다 타협 특점이 높았다( $F(1,391)=4.470, p < .05$ ). 또한 국가 및 가족구조의 상호작용효과 ( $F(3,391)=2.925, p < .05$ )가 유의미하였는데, 사후검증에서 고친밀감·고부세력군, 고친밀감·저부세력군, 저친밀감·저부세력군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타협 전략을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었다. 협조 전략의 경우, 가족구조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는데 ( $F(3,391)=3.767, p < .05$ ),

Tukey의 HSD법에 의한 다중 비교 결과, 고친밀감·저부세력군이 저친밀감·고부세력군보다 협조 특점이 유의하게 높았다( $F(3,391)=3.767, p < .05$ ).

일본은 한국보다 회피와 타협 전략 사용정도가 높으며, 한국은 일본보다 주장과 양보 전략 사용정도가 높은 점은 표 4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로써 일본 여성은 타자지향성과 자기지향성 양쪽 모두가 높거나 낮은 전략을 선호하고 있으며, 한국 여성은 타자지향성 자기지향성 중 어느 한 쪽에 편중된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협조 전략에서는 국가보다 가족구조의 차이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가족의 친밀감이 높고 남편의 세력이 낮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가족의 친밀감이 낮고 남편의 세력이 높다고 생각하는 여성들보다 높은 협조 전략의 사용정도를 보였다.

표 7. 국가와 가족구조 군집별 TKI특점 평균치, 표준편차, 변량분석 결과

국가		한국								
ICHIGEKI 특점에 따른 군집	CL1고친밀감 · 고부세력군 (n=78)	CL2고친밀감 · 저부세력군 (n=95)	CL3저친밀감 · 저부세력군 (n=74)	CL4저친밀감 · 고부세력군 (n=16)						
	평균치(표준편차)	평균치(표준편차)	평균치(표준편차)	평균치(표준편차)						
	회피	3.115(1.299)	3.021(1.263)	3.095(1.435)	3.313(1.401)					
주장	2.103(1.517)	2.221(1.510)	2.405(1.638)	1.625(1.088)						
양보	4.346(1.458)	4.021(1.429)	4.068(1.398)	4.375(1.784)						
타협	2.692(1.120)	2.684(1.123)	2.730(1.114)	3.313( .793)						
협조	2.744(1.362)	3.053(1.371)	2.689(1.158)	2.375(1.408)						
국가		일본								
ICHIGEKI 특점에 따른 군집	CL1고친밀감 · 고부세력군 (n=41)	CL2고친밀감 · 저부세력군 (n=28)	CL3저친밀감 · 저부세력군 (n=52)	CL4저친밀감 · 고부세력군 (n=15)						
	평균치(표준편차)	평균치(표준편차)	평균치(표준편차)	평균치(표준편차)						
	회피	3.927(1.191)	3.929(1.184)	3.577(1.226)	4.133(1.767)					
주장	1.439(1.397)	1.250(1.175)	1.596(1.524)	1.733(1.387)						
양보	3.463(1.518)	3.357(1.890)	3.596(1.683)	4.400(1.056)						
타협	3.171( .803)	3.250( .967)	3.346( .905)	2.733( .799)						
협조	3.000(1.500)	3.214(1.771)	2.885(1.293)	2.000(1.254)						
척도	국가 주효과 (df=1)			가족구조 주효과 (df=3)			상호작용효과 (df=3)			집단내 오차 (df=391)
	F	$\eta^2$	p	F	$\eta^2$	p	F	$\eta^2$	p	MSE
회피	21.6***	.052	.000	.86	.006	.436	0.54	.004	.656	1.726
	한국<일본									
주장	1.04**	.025	.002	0.81	.006	.487	1.05	.008	.369	1.066
	한국>일본									
양보	7.08**	.017	.008	1.67	.001	.174	.84	.001	.473	2.288
	한국>일본									
타협	4.47*	.011	.035	.23	.002	.879	2.93*	.022	.034	2.215
	한국<일본									
협조	.12	.000	.725	3.77*	.028	.011	.45	.003	.719	1.865
	CL1,2,3: 한국<일본 CL2 > CL4									

\*\*\* $p < .001$ , \*\* $p < .01$ , \* $p < .05$

## 논 의

본 연구는 부부관계만족도가 낮은 아내에게 주목하여 한일 중년기여성이 인지하는 가족구조의 차이를 밝히고, 가족구조와 부부 갈등해결 전략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먼저 한국과 일본의 아내가 인지하고 있는 가족구조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가족구조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친밀감이 높은 구조이며, 일본의 가족구조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지배력이 강한 구조로 나타났다. 한국이 일본보다 가족의 친밀감이 강한 것은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김은미, 1996; Kudou, 1991; Mikane, Kirino, Futoyu, & Nakajima, 2011). 그러나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측정하는 기존의 척도와 달리, 가족을 3자 관계로 파악했을 때, 부-모, 부-자 친밀감의 차이가 가족구조의 한일 차를 규정하는 특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상대에 대한 영향력과 발언력을 의미하는 세력은 가족의 관계성이 희박하면 성립하기 어려운 변수이다. 그것을 고려하면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세력이 큰 일본의 가족구조는 3자 관계의 서브시스템인 모자 양자관계의 거리가 다른 서브시스템보다 가까워,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발언력, 지배력이 한국보다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따라서 양국의 가족구조의 특징을 정리하면, 한국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3자관계가 결합된 가족구조, 일본은 모-자로 규정되는 2자관계의 서브시스템이 두드러진 가족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가족은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으로 가부장제적인 가치관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동아시아 각국의 급격한 근대화 는 가족에 대한 가치관에도 변화도 일으키고

있다. Date(2013)는 Sechiyama(1996)의 동아시아 가부장제 연구에서, 가부장제 의식을 부권존중 의식과 성별분업의식이라는 두개의 축으로 정의하여, 가부장주의, 부권형 평등, 자유·평등주의, 분업형 자유의 4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그 중에서, 한국은 부권존중은 인정하지만 성별 분업은 부정하는 부권형 평등 유형에, 일본은 부권존중도 성별분업도 부정하는 자유·평등주의 유형으로 분류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양국의 가족구조의 특징은 Date(2013)의 견해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일 간 가족구조의 차이는 어디에 기인 한 것일까?

첫째, 일본의 가족 개인화 경향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가족 개인화란 “생활편성의 중심을 개인가치의 실현에 두는 경향”으로 정의 된다(Nagatsu, 2007).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 진출에 의해 여성의 삶의 방식이 가족중심의 삶에서 개인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띄고 있지만 일본의 가족 개인화 경향이 한국보다 20년 선행되어 있다는 지적(Nagahisa, Kagashiwagi, & Kang, 2003)을 고려할 때, 한일 여성의 가족 개인화 경향의 차이로 인해 가족 구조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Meguro(1987)에 의하면 전통적인 가족 구조 내에서는 복수의 구성원이 동시에 서로와 관련을 맺으나 가족 개인화 경향으로 인해 점차 가족 내에서도 2자관계에 주목하게 되는데, 이를 “소가족화”라고 한다(Meguro, 1987). 일본의 소가족화 현상은 모-자 간 서브시스템의 특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가족 내 성별역할분업의 문제가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의식 차원에서는 성별역할분업 의식을 부정하고 있는 일본이지만, 실제로

남성은 장시간 밖에서 일하고 있고, 여성의 가사·육아 노동 시간은 남성보다 길고, 또한, 육아는 주로 여성의 역할이 되어 있다(Tsuya, Bumpass, & Choe, 2000). 이러한 현실에서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영향력이 확대된 가족구조가 생겨났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일본인 조사 대상자 중에는 직업을 가진 여성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Suemori(2005)는 맞벌이로 인하여 아내의 역할이 증대 혹은 과중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긍정적 의미에서의 증대이든 부정적 의미에서의 과중이든, 경제 주체로서의 아내가 가족 내에서 위상이 높아진 점 또한 모의 자에 대한 세력의 한일 차의 원인 중 하나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한국 남성은 일본 이상으로 장시간 노동해야 하는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Tsuya, Bumpass, & Choe, 2000) 한국의 아버지가 일본의 아버지보다 가족과 연결되어 있다고 인식되고 있는 것은 유교적 가족관에 근거한 부권존중의식에 기인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실제로 전통적으로 한국은 일본보다 유교의 영향이 더 컸으며(Kaji, 1990), 한국의 가족 제도에는 일본에 비하여 유교의 영향이 아직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Suzuki, 2012).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일의 가족구조의 차이 뿐 아니라, 앞서 언급한 가족구조를 배경으로 아내가 선택하는 갈등해결전략의 차이에도 초점을 맞추었는데, 연구 결과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차이에 근거하여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타자지향성과 자기지향성 중 어느 한쪽에 편중된 전략, 즉 주장 혹은 양보를 선호했고, 일본은 타자지향성과 자기지향성 양 쪽 모두가 높거나 낮은 타협 혹은 회피를 선호하였

다. 이런 결과는 이누미야요시유키(2003)의 문화적 자기관에 따른 한일 차이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적 자기관이란 특정 문화 내에서 역사적으로 공유되어 온 자기에 대한 인식이며(Kitayama, 1994), 서양에서는 자기 인지에 있어서 개인의 능력이나 성격이 중요시되는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우위를 차지하며, 동양에서는 자기 인지에 있어서 타자나 주위 상황으로의 융합이 중요시되는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우위를 차지한다(Markus & Kitayama, 1991; Kitayama, 1994). 이누미야요시유키(2003)는 동양의 문화적 자기관 즉, 상호협조적 자기관을 세분화하여, 한국인은 주체성 자기, 일본인은 대상성 자기를 발달시킨다고 하였다. 주체성 자기는 집단 내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체로서 자기라는 개념을 정의하며, 자신의 느낌, 생각, 사정, 심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여 자기 현실성이 뚜렷한 심정적 자기의 성질을 갖는다. 이에 비하여, 대상성 자기는 집단 내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수용하는 대상으로서 자기개념을 정의하며, 외부에 기원을 둔 준거틀에 초점을 맞춰, 타자가 기대하는 규범, 의무, 기대 등을 내면화하는 자기 억제성이 뚜렷한 역할적 자기의 성질을 갖는다(이누미야요시유키, 한민, 이다인, 이주희, 김소혜, 2007). 또한,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 주체적인 위치를 취하고자 하는 구성원이 모인 집단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폐쇄성이 높은 심정적 관계가 형성되며, 외부기원의 준거를 내면화하는 역할적 자기는 사람 앞에서의 수치를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다(이누미야요시유키, 2003).

즉, 일본인 아내의 경우, 상대의 태도를 수용하고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는 대상성 자기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갈등해결전략 사용에 있

어서도 남편과 균형을 맞추어 회피나 타협을 선택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 앞에서 수치심을 겪지 않고자, 타자지향성 혹은 자기지향성에 편중된 전략을 선택하지 않으려는 자기 억제성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한국인 아내는 주체성 자기가 발달되어 있어서, 남편의 태도와 별도로 자신의 감정을 나타낼지 말지를 주체적으로 선택한다. 집단의 일체성을 우선시하는 폐쇄적인 심정적 관계를 고려하여 양보를 선택하거나, 자신을 솔직히 표현하는 자기 현시성으로부터 주장을 선택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와 같은 문화적 차이에 주목하여 회피 전략이 양국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회피와 양보 간의 부적 관련성이, 일본의 경우 회피와 주장 간의 부적 관련성이 제시되었다. 이를 문화적 자기관의 한일 차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타자지향성이 낮은 회피와 타자지향성이 높은 양보 사이의 부적 상관은, 주체성에 근거한 자기가 타인의 의견을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과정을 거쳐서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일본에서의 자기지향성이 낮은 회피와 자기지향성이 높은 주장 사이의 부적 상관은, 우선은 타인의 영향력을 수용하고, 자기 의견을 표명할 것인가(주장), 표명하지 않을 것인가(회피)를 선택하는 과정임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한국에서의 회피는, 자신의 의견과는 다르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납득하고 받아들이는 양보와는 달리,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일본에서의 회피는,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있지만 의견을 말하지 않는 침묵을 통해서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 주로 사용되는 갈등해결전략은 양보와 회피이지만, 그 의미는 한국과 일본에서 다를 것으로 시사되어 갈등해결전략의 연구에 있어서 개인주의-집단주의와 같은 지나치게 단순화 된 이분법에서 벗어나 각국의 개별성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족구조에 따라 부부 갈등해결 전략 정도에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일본에서는 저친밀감·고부세력군을 제외한 나머지 세군에서 타협의 득점이 한국보다 높았다. 또한, 협조 전략은 국가에 관계없이 고친밀감·저부세력군이 저친밀감·고부세력군보다 협조의 득점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공통적으로 가족의 친밀감이 높은 것과 아버지의 세력이 낮은 것은 아내의 타협, 협조 전략의 사용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다. 이것은 가족의 친밀감이 높은 것은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김수연, 김덕성, 1993). 또한, 아버지의 세력이 크다는 것은 어머니와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영향력과 발언권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한 관계성의 부부는 갈등 상황에서 남편의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 즉 비대칭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서두에서 언급하였듯, 본 연구의 대상인 중년기여성의 아내는 남편에 비해 결혼 만족도가 낮고 가족생활주기에 있어서도 과도기에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놓인 중년기 여성에게 있어서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원만한 부부관계의 유지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Yu(2014)는 한일 중년기여성을 대상으로 부부의 갈등해결전략과 부부관계만족도의 관련성을 조사하여, 타자지향성과 자기지향성이 높은 타협과 협조 전략이 아내의 부부관계만족도를 높인



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부부관계만족도의 측면에서 타협과 협조는 긍정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남편과의 대등한 부부관계는 아내의 부부관계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Takeuchi, 2007). 갈등상황에서 자신과 상대방의 이익을 추구하는 타협과 협조와 같은 전략은 부부의 원만하고 대등한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여 아내의 부부관계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 결과를 크게 두 가지로 결론내릴 수 있다. 첫 번째는 갈등해결전략의 사용정도는 국가와 가족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어, 한국은 부권형 평등적 가족구조 내에서 자기 현시성이 뚜렷한 주체성 자기가, 일본은 개인화된 가족구조 내에서 자기 억제성이 뚜렷한 대상적 자기가 갈등해결전략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두 번째는 5개의 갈등해결전략 중 타협과 협조는 부부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시사되었는데, 이로부터 양국에 있어서 친밀하고 평등주의적 부부관계는 아내의 타협 협조 전략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서, 부부의 갈등해결전략을 검토함에 있어서 양국의 아내가 인지하는 갈등해결전략에 국한하여 검토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부부의 커뮤니케이션은 상호 작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차후에는 부부 양측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하여 부부갈등 커뮤니케이션의 실태를 밝히고, 부부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갈등해결전략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 중년기여성의 갈등해결전략이라는 행동면에 있어서 차이를 검토하였으나, 갈등해결전략의 사용은 내적 동기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내적 동기를 알 수 있는 인터뷰 조사와 같은 질적 연구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비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참고문헌

- 김대영 (2007). Satir의 의사소통유형, 자아존중감 및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대학원.
- 김범성 (2007). 경영자의 성격과 갈등관리기법에 관한 연구 - MBTE와 TKI를 중심으로. 인사관리연구, 31, 29-54.
- 김수연, 김덕성 (1993). 부부의 응집 및 적응과 의사소통의 관계: 순환모델의 곡선성 대선행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 30-39.
- 김은미 (1996). 부부의 가족지향의식에 관한 한일 비교. 대한가정학회, 34, 1-14.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 이강호 (2006). 가족생활주기별 결혼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 이누미야요시유키 (2003). 한일 비교 성격론. 일본연구, 11, 103-125.
- 이누미야요시유키, 한민, 이다인, 이주희, 김소혜 (2007).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 17-34.
- 장수지 (2010). 대인 간 갈등해결전략에 대한 비교문화 연구 - 한국, 일본, 미국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사회 및 성격, 24, 1-17.
- 통계청 (2015). 2014년 출생통계 (확정), 국가



- 승인통계 제10103호 출생통계. Retrieved from <http://index.go.kr>.
- Bell, D. (1987). The world and the United States in 2013. *Daedalus*, 116, 1-31.
- Blake, R. R. & Mouton, J. S. (1964). *The managerial grid*. Houston, Texas: Gulf.
- Brahnam, S. D., Margavio, T. M., Hignite, M. A., Barrier, T. B., & Chin, J. M. (2005). A gender-based categorization for conflict resolution. *Journal of Management Development*, 24, 197-208.
- Brewer, M. & Chen, Y. (2007). Where (who) are collectives in collectivism? Toward conceptual clarification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sychological Review*, 114, 133-151.
- Buehlman, K. T., Gottman, J. M., & Katz, L. F. (1992). How a couple views their past predicts their future: Predicting divorce from an oral history interview.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5, 295-318.
- Cabinet Office. (2015). *Heisei 27endo shiyoushika shyakai taisaku bakusyo* [Counterplan to falling birthrate in the year of 2015]. Cabinet Office of Japan. Retrieved from <http://www.cao.go.jp>.
- Chua, E. G. & Gudykunst, W. B. (1987). Conflict resolution styles in low- and high-context cultures.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4, 32-37.
- Date, H. (2013). The effects of higher education on patriarchy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Focusing on six Asian societies. *Japanese Sociological Review*, 64, 187-204.
- Deutsch, M. (1973). *The resolution of conflict*.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Hicks, J. L. (1970). Some properties of ipsative, normative and forced choice normative measures, *Psychological Bulletin*, 74, 167-184.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 related values*. Newbury Park, CA: Sage.
- Ito, Y., Shimonaka, Y., & Sagara, J. (2009). Marital rel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middle-aged and elderly couples. *Journal of Research Institute of Bunkyo Gakuin University*, 10, 191-204.
- Johnson, A. K. (1997). Conflict-handling intentions and the MBTI: A construct validity study. *Journal of Psychological Type*, 43, 29-39.
- Kaji, N. (1990). *What is Confucianism?* [Jynkyo touwa namika]. Tokyo: Chukoshinsyo.
- Kambara, H. (1992). Otto oyobi tsuma no huhukankei manzokudo wo kiteisuru mono [What determines marital satisfaction of wife and husband]. *Bulletin of the Faculty of Letters, Aichi Prefectural University*, 41, 37-66.
- Kashiwagi, K., Kazui, M., & Ohno, Y. (1996). Kekkou, kazokukan no hendouni kansuru kenkyu (4): Huhukankei no manzokudo to kazokuni kansuru kachikan no kanren [A study on change in views to marriage and family: Relationships between marital satisfaction and family values]. *Annual convention of the Japanese Association of Educational Psychology*, 38, 41.
- Kilmann, R. H. & Thomas, K. W. (1977). Developing a forced-choice measure of conflict-handling behavior: The "mode" instrument.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37, 309-325.
- Kim, U.-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 Conceptual clarification and elaboration. In U. C. Kim, H. C. Triandis, Ç. Kağıtçıbaşı, S. C. Choi, & G. Yoon (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 (pp. 19-40). Thousand Oaks, CA: Sage.
- Kitamura, K. (1985). Chyunenki kazokuno stress to taiou [Dealing with stress in middle - aged family]. In K. Ishihara (Ed.) *Kazoku seikatsu to stress [Family life and stress]* (pp. 216-236). Tokyo, Japan: Kakiuchi Publishing.
- Kityama, S. (1994). Bunkateki jikokan to sinriteki proses [Cultural views of self and psychological processes]. *Shyakai Shinrigaku Kenkyu [The Japanese Society of Social Psychology]*, 10, 153-167.
- Kozuka, T. (2014). *A study concerning the association of family structure with adolescent stress: development and examination of family balance hypothesi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ohoku University, Sendai, Japan.
- Kozuka, T., Noguchi, S., Uruma, R., Ishihashi, Y., & Wakashima, K. (2008). Kazokukouzou no sokuteini okeru kouseiinsini kansuru kenkyuu [A study on configuration factor in measuring family structure]. *Risbo University Repository: Clinical Psychology Research*, 6, 19-32.
- Kudou, S. (1991). Kazoku isiki no henka to seikatu yousiki no henbou [Change in family consciousness and life style]. *Kazokukankeigaku [Family Relationships]*, 10, 57-67.
- Kurdek, L. A. (1994). Areas of conflict for gay, lesbian, and heterosexual couples: What couples argue about influences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923 - 934.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3-253.
- Meguro, Y. (1987). *Kojinka suru kazoku [Individualized family]*. Tokyo: Keisoshobo.
- Mikane, S., Kirino, M., Futoyu, Y., & Nakajima, K. (2011). Influence of family cohesion and sense of filial responsibility on viewpoints regarding socialization of elderly care in East Asian countries. *Kawasaki Journal of Medical Welfare*, 17, 37-50.
- Morley, D. D. & Shockley - Zalabak, P. (1986). Conflict avoiders and compromisers: Toward an understanding of their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tyle. *Group & Organization Studies*, 11, 387-402.
- Nagahisa, H., Kashiwagi, K., & Kang, R.-H. (2003). Kikon jyosei ni okeru kazokukan to kodomo no kachi no nikkan hikaku [Relationship between family values and the value of children among married women: A comparative study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Bunkeyo University Repository*, 5, 95-118.
- Nagatsu, M. (2007). *Chyumenki ni okeru hubukankei no kenkyu - Kojinka, kobetsuka, tougou no sitenkara [A study on middle-aged marital relationships: From perspectives of individualization, personalization, and integration]*. Tokyo: Nihon Hyoron.
- Nakahori, J. (1992). Middle - aged huhuno sinriteki kiki [Mental crisis of middle - aged married couples]. In T. Okadou (Ed.), *Kazoku simrigaku nyumon [Introduction to family psychology]* (pp. 193 - 206). Tokyo, Japan: Baifukan.

- Noguchi, S., Kozuka, T., Usami, T., & Wakashima, K. (2009). Development and examination of validity for a new family structure assessment scale "ICHIGEKI", *Toboku University Repositor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Faculty of Education*, 58, 247-266.
- Ohbuchi, K., Fukushima, O., & Tedeschi, J. T. (1999). Cultural values in conflict management: Goal orientation, goal attainment, and tactical decision. *Journal of Cross - Cultural Psychology*, 30, 51-71.
- Olson, D. H., Portner, J., & Lavee, Y. (1985).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FACES III)*. St. Paul: University of Minnesota, Family Social Science.
- Pruitt, D. G. & Rubin, J. Z. (1986). *Social conflict: Escalation, stalemate, and settlement*. New York: Random House.
- Sechiyama, K. (1996). *Higashi Asia no Kabutyousei: Gender no hikaku shiyakaigaku [Patriarchy in East Asia: Gender's comparative sociology]*. Tokyo, Japan: Keisoshobo.
- Shantz, C. U., & Hobart, C. J. (1989). Social conflict and development: Peers and siblings. In T. J. Berndt & G. Ladd (Eds.), *Peer relationships and child development* (pp. 71-94). New York: Wiley.
- Slater, C. L. (2003). Generativity versus stagnation: An elaboration of Erikson's adult stage of human development.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0, 53-65.
- Soma, N. (2012). Compressed family changes and family policy restructuring: From a comparative analysis of Japan and South Korea. *Journal of Population Problems*, 68, 85-104.
- Suemori, K. (2005). Hahaoya no shuyogyo jyoutai ga kodomo ni ataeru eikyou - Senkou kenkyu no gaikan to kongo no tenbou [Mother's vocation's impact on children: Previous researches and further prospects]. *Journal of Social Welfare, Nihon Fukuishi University*, 112, 117-132.
- Sugahara, M. & Takuma, N. (1997). Huhukan no sinmitsusei no hyouka: Jikinyusiki huhukankei shyakudoni tsuite [Evaluation of marital intimacy: On a self-completion scale measuring marital satisfaction]. *Archives of Psychiatric Diagnostics and Clinical Evaluation*, 8, 155-166.
- Suzuki, T. (2012). Nihon, Higashi Asia, Europe no shiyosika - sono doukou, youin, seisaku taiou wo megutte [Very low fertility in Eastern Asian and Europe: Trends, determinants and policy responses]. *Jinkou Mondai Kenkyu [Journal of Population Problems]*, 68, 14-31.
- Takano, Y. & Osaka, E. (1999). An unsupported common view: Comparing Japan and the U.S. on individualism/collectivism,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 311-341.
- Takeuchi, M. (2007). Otto no support ga huhu no kekkon manzokukan wo takameru [A husband's support enhances marital satisfaction]. In Nagai, A & Matsuda, S. (Eds.) *Taitouna huhu wa siawaseka [Are equal married couples happy?]* (pp. 77-96). Tokyo: Keisoshobo.
- Thomas, K. W. (1976). Conflict and conflict management. In M. D. Dunnette (Ed.),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 psychology* (pp. 889 - 935).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Thomas, K. W. & Kilmann, R. H. (1974). Thomas - Kilmann Conflict Mode Instrument. Mountain View, CA: Xicom.
- Thomas, K. W., Thomas, G. F., & Schaubhut, N. (2008). Conflict styles of men and women at six organization level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Management*, 19, 148-166.
- Triandis, H. C. (1989). Cross - cultural studi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37, 41-133.
- Triandis, H. C., Bontempo, R., Villareal, M. J., Asai, M., & Lucca, N. (1988).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Cross - cultural perspectives on self - ingroup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323-338.
- Tsuya, N. O., Bumpass, L. L., & Choe, M. K. (2000). Gender, employment, and housework in Japa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Review of Population and Social Policy*, 9, 195-220.
- Van de Vliert, E. & Kabanoff, B. (1990). Toward theory - based measures of cognitive managemen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3, 199-209.
- Vuchinich, S. (1990). The sequential organization of closing in verbal family conflict. In A. D. Grimshaw (Ed.), *Conflict talk: Sociolinguistic investigations of arguments in conversations* (pp. 118-138).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kashima, K. (2010). *Kazoku chiryou professional seminar [Family therapy professional seminar]*. Tokyo, Japan: Kaneko Shyobo.
- Yoshizumi, K. (2004). *Sweden no kazoku to partner kankei [Sweden's family and partnership]*. Tokyo: Aoki Shyoten.
- Yu, K.-R. (2014). A comparative study on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and marital satisfaction for Japanese and South Korean wives, *Toboku University Repositor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Faculty of Education*, 63, 159-175.

1차원고접수 : 2016. 00. 00.

심사통과접수 : 2016. 00. 00.

최종원고접수 : 2016. 00. 00.

## **A comparative study of middle-aged women's marital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and family structures in Japan and South Korea**

**Yu, Kyung-Ran**

Faculty of Education  
Tohoku University

In this research, relationships between middle-aged-wife-perceived family structure and marital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in Japan and South Korea were examined, and their national differences were discussed with a socio-cultural perspective. For this purpose, intimacy and power between father, mother, and child, and wives'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were surveyed. The results were as follow. First, t-test of intimacy and power showed that family structures in Korea and Japan were characterized by father-centered close adhesion based on Confucian family views that respect father's power, and by mother's strong power over children based on individualization in family and increase in wife's socioeconomic status, respectively. Second, comparison of five conflict resolution showed difference between Koreans and Japanese, probably due to different self-construals; Subjectivity-developed Koreans preferred asserting and yielding with a self-manifesting view, while objectivity-developed Japanese did avoiding and compromising with a self-regulating view. Additionally, Koreans' and Japanese' correlations between marital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revealed that meaning of yielding differs in the two nations, to leave the necessity of attending to national characteristics beyond the dichotomy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Third, two-way ANOVA of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with nations and four family structures as independent variables showed that family's high intimacy and father's weak power were found effective in deriving wife's compromising and cooperation. Overall, it was concluded that both nations' socio-cultural backgrounds affected marital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and that friendly equalitarian relationships are needed to induce wife's constructive strategies.

*Key words* : middle-aged women, marital conflict,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family structure, Korea and Japan comparative study